

■ 2018년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하반기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 하반기 연극분야
- 회의일시 : 2018. 10. 17(수) 15: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2018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하반기 연극분야 심의대상은 총 134건이었고, 이중 118건을 선정하여, 총 707,976,000원(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대비 지원건수가 적어서 심의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지원기준에 어긋난 지원자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기로 했다. 선정탈락한 16건을 살펴보면, 상반기 지원탈락한 동일 작품으로 지원하거나, 지원신청단체 자체 운영극장의 자체 기획공연 및 공동기획공연, 지원신청단체가 예전에 보조금 관리규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중앙/지방정부지원금의 엄격한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지원조건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는 자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공연작품의 예술성 40%, 공연단체의 역량 3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이라는 지원분야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임했다. 본 지원사업의 범주가 '예술창작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연극/뮤지컬의 창작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앞에 두고 심사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심사위원들은 지역연극 인프라의 확충과 중앙/지방정부의 지원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이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단체에 대한 안배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함에 동의했다.

-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대의에 어울리지 않은 성격의 공연들, 예를 들어, 몇 년 전의 창작물을 반복적으로 재공연하는 경우, 해외 라이선스에 기반한 대형기획공연 등은 엄격한 잣대로 심사했다.

- 타 기관 지원금 수혜 공연 중에서 지원금 규모 대비 총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등은 지원규모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원예산이 넉넉한 관계로 보편적 지원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연극심사에서 항상 논쟁의 주제가 되는 상업극이나 인기스타 중심의 공연 들도 예술지원의 목적에 비취볼 때 지원배제가 옳으나 같은 이유로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했다.

- 이번 심사에서도 연극과 뮤지컬을 동일범주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반복되는 지적인만큼 문예위 측에서 심사숙고해주길 기대한다.

- 상업성이 강하고 완성도가 낮은 아동극 또한 현재의 공연방식이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동극은 예비관객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지원기관의 큰 숙제이니만큼 새로운 지원방식을 고안해주길 바란다.